

2 과 예수님 사역의 하루 일과

일. 특별한 사역들:

❖ 제자들을 부르심. 막 1:16-20.

- 마가복음의 특징은 글의 내용이 간결하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읽지 않으면 제자들을 부르신 당시 상황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.
-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들은 이전부터 침례 요한을 추종했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또한 따랐습니다. 가장 먼저 안드레와 요한이 그분을 따랐고 그들의 형제들이 동참했습니다(요 1:35-42).
-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기적적으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. 네 형제의 그물은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(눅 5:1-7).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고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(눅 5:8-11).
- 야곱과 요한은 가업을 아버지에게 맡기고,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자신들의 직장을 떠났습니다.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순종했고 자신들의 삶과 온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.

이. 안식일에 하신 사역들:

❖ 회당에서 가르치심. 막 1:21-28.

-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우연히 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꾸준히 지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(눅 4:16).
-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? (막 1:22).
-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지는 않았습니다. 대적(사탄)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기 위해 예배 중에 소란을 피웠습니다 (막 1:23-26). (하지만 예수님께서) 바로 손을 쓰셔서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(막 1:27-28).
- 이 사건에서 세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:
 - (1) 교회안에도 마귀가 있었습니다.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“가라지”들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(마. 13:24-30).
 - (2)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분의 영향을 없애 버리려 애썼습니다.
 - (3) 예수님께서 귀신들려 크게 소리지르는 사람에게 조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. 아직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.

❖ 치료하심. 막 1:29-34.

- 제자들이 저녁 식탁을 차리면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나고 아파서 누워있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(막 1:30). (예수님께서) 그녀를 치료하셨고 그녀는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(막 1:31).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좋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려는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 오르게 됩니다.
- 귀신들린 사람이 치유 받은 사건은 온 가버나움 가정에 알려졌고, 거룩한 안식일 시간이 지나 해가 지자마자 사람들은 많은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(막 1:32-34).
- 기쁨과 감격의 목소리가 시몬의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! 병이 나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, 예수님도 그들의 회복된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.

삼. 하루 일과:

❖ 기도와 가르치심. 막 1:35-39.

-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. 늘 그렇듯이,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자신이 오늘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(막 1:35; 요 8:28).
-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셨고, 우리에게 자신이 하는 것을 따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(막 6:46; 눅 3:21; 5:16; 9:18; 11:1; 18:1). 절실한 경우에는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(눅 6:12-13; 마 14:21-23).
-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 매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? 우리도 절실한 상황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?

❖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율법을 지키심. 막 1:40-45.

- 무서운 병을 앓고 모든 사람들로 부터 떨어져 홀로 살아야 했던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치료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(레 13:45; 막 1:40).
-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율법이 금지한 행동을 하셨습니다. 예수님은 부정한 한센병 환자를 만지셨지만 자신이 부정해 지시지 않고 대신 부정했던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.

- 우리가 자신의 죄와 더러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.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자신처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.
- 그를 치료하신 후, 예수님은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(막 1:44):
 - (1)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검사 받으라: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셨습니다;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기회를 주셨습니다
 - (2)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: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(한센병으로)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먼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; 예수님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빼돌어진 환상에 빠지는 것을 피하셨습니다